



“퀴즈로 푸니 재미 백만배!!” 우리가 불교 선지식

파라미타 문화재 바로 알기 골든벨



봉은사 미륵전 광장 앞에서 학생들이 2010년 파라미타 신입회원 입단식 선서를 하고 있다.

“백제는 세 번에 걸쳐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백제가 세 번에 걸쳐 옮긴 수도의 이름을 각각 순서대로 적어 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위례성, 웅진, 사비입니다.”
정답이 발표되는 순간 봉은사 법왕루가 학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로 들쭉거린다. 문제가 어려웠던 것일까? 많은 학생들이 대거 탈락하자, 응원을 하던 친구들은 ‘아~’ 하는 탄성을 자아낸다. 탈락된 학생들의 얼굴에도 아쉬움이 역력히 묻어났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명진)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자 6월 5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전통문화재 바로 알기 도전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청소년들의 흥미유발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KBS1에서 방송되고 있는 도전!골든벨 퀴즈 프로그램 형식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중·고등부로 나뉘어 중등부는 봉은사 보우당에서, 고등부는 법왕루에서 진행됐다. 중등부와 고등부 각각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전통문화재 바로 알기 도전 골든벨’은 예선문제를 통과한 50여 학생들이 본선에 진출해 퀴즈를 푸는 방식이었다. 예선문제를 풀고, 본선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은 봉은사 문화재 탐방에 나섰다. 유달리 뜨겁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봉은사 경내가 그려진 탐방지도들 들고 봉은사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재들을 탐방하기 시작했다. 탐방지도에는 숨은그림찾기처럼 문화재에 대한 퀴즈풀이가 적혀있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퀴즈를 풀기위해 봉은사 경내를 누볐다.
탐방을 마친 학생들은 다시 모여 본선진출자 호명을 기다렸다. 본선진출에 확정된 50여

고등부 강병형 · 중등부 김용관군 우수

청소년들이 깊고 넓게 불교문화 이해하길

명의 학생들의 이름이 호명되자, 일부 예선에 떨어진 학생들의 불만소리가 들려왔다. 험광 펜으로 밀줄을 그으며 공부한 예상문제집을 흔들며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떨어 진거야”라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아쉬워하는 것도 잠시, 본선에 올라가는 친구들을 응원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문제풀이가 거듭되며 탈락자가 속속들이 나타나자, 각 학교마다 응원의 열기가 더욱 더 뜨거워졌다. 퀴즈가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응원은 폭발적이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문제를 푸는 친구들을 위해 목청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던, 동대부속고 1학년 강병형군과 동대부속고 3학년 김도선양의 대결은 보는 이를 진땀나게 만들었다. 두 남·여학생의 승부에 각 학교의 응원 열기는 법왕루 안을 뜨겁게 달랐다.
끝까지 접전에 접전을 거듭하던 결과, 행운의 여신은 결국 동대부속고 강병형 군에게 손을 들어줬다. 접전 끝에 결국 우승을 차지한 강병형 군은 이날 “중간에 떨어질 줄 알았다. 우연치 않게 이번 퀴즈대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병형 군이 결국 우승을 차지하자, 법왕루가 떠나갈 정도로 동대부속고 학생들의 함성 소리가 이어졌다. 아쉽게 준우승을 한 김도선양은 “떨어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후회는 없다”며 “고등학교 마지막 시절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겨 기분이 좋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가하고 싶은데, 고3이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여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우승을 차지한 강병형군에는 50만원의 장학금이, 준우승을 차지한 김도선양에는 30만원이 장학금이 상금으로 시상됐다. 또한 중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동대부속중 김용관군과 준우승을 차지한 동대부속여중 박재림양에게는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고등부 도전 골든벨의 사회를 맡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의 임운진씨는 “생각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우리 전통문화의 70% 이상이 불교문화인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불교문화에 대해 다시한번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돼 좋은 경험이였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 있는 행사라 학생들에게 예상문제를 미리 나눠줬는데, 앞으로는 예상문제가 아닌 자료집을 추천해줌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더 깊고 넓게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도전 골든벨을 마친 학생들은 봉은사 미륵전 앞 광장에서 ‘2010년 파라미타 신입회원 입단식’을 진행했다. 신입회원 입단식에서는 신입회원의 입단 선서, 서울협회장 범문, 장학금 수여, 축하공연 등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봉은사, 조계사, 진관사, 불광사, 육천암, 동국대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서울파라미타 19개의 소속 학교들이 참가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동국대부속고 강병형군이 우승을 하자 친구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다.

梵鐘名家 聖鐘社

범종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21세기 최고의 걸작품 탄생

세계 최고의 성종사 주조기술에 개채(改彩)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청원선님의 기술이 더해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 범종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개채 및 개금을 통해 범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개채와 같은 표면처리로 인해 종소리가 둔탁해지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신제품으로, 한국 범종의 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금세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름다운 개채 범종



금고 (금박+은박)



범종 (못칠+개금)



해인사종 (금박+은박)

www.sungjonga.co.kr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문을 닫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전체 주부리면 공이 아까워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대표: 범선 원광식
(중요문화유산지킴이 · 대한민국 명장)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02-733-6141 ● 공장: 충북 진천군 덕사면 함곡리 406-28 Tel:043-536-2581